

국제 회의의 요람 비엔나

- VIC 준공 25주년에 -

김 병 구

IAEA 유럽·남미·서아시아 기술협력국장

지난 10월 18일 이곳 Vienna International Center(혹은 UNO City) 중앙 분수 광장에서 만국기 게양대 헌정과 함께 VIC 준공 25주년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미 비엔나의 명소로 자리를 굳힌 이곳 VIC는 15개 UN 기구가 입주하여 100여개국에서 온 5천여 명의 국제 공무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함께 근무하는 작은 도시이다.

여기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국제 회의만도 1년에 3,000여 건이고 이 회의 참석차 오가는 외국 참석자도 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평균 1천불만 비엔나에서 쓰고 간다고 해도 VIC 방문자 연간 수익이 5천만불을 넘으니, 이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UN을 비엔나로 유치했던 이 나라 정치인의 안목이 convention 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큰 거위를 확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무슨 저력으로 이런 일을 해 내었을까?

국제 회의의 원조는 Vienna Congress(?)

19세기 초 나폴레옹은 비엔나를 두 번이나 쳐들어오지만 결국 패망하고 종전 후 유럽 전체의 새로운 국경을 새로이 결정하는 Vienna Congress가 1814~15년 만 2년여의 마라톤 국제 회의를 비엔나시가 host하게 된

다. 요즘도 매년 2월이면 IAEA 무도회(舞蹈會(Ball))가 열리는 비엔나 중심의 Hofburg 궁내 대연회장이 바로 그 회의장이었던 곳이라는데, 당시 전체 유럽의 모든 왕족과 국가 원수/정치가들 수천 명이 이곳에 집결했다.

그 때만해도 Habsburg 왕조가 아직 건재하고 Metternich 수상이 이끄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얹히고 얹힌 국제 분쟁 사연들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다. 총칼로 싸우던 국가간의 맺힌 한을 국제 회의라는 신사(?)들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 올린 셈이다.

마침 이 때는 비엔나 문화 예술의 전성기에 해당하여 음악에는 Mozart, Strauss, 건축에는 Fischer, Hildebrandt 등이 아름다운 궁과 오페라 전당을 짓고 그 안에서 월츠 무도회와 오페라를 감상했다. 오죽하면 "The Congress is dancing"이란 말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 국제 외교와 사치가 극에 달하여 이 바람에 이 나라 재정이 바닥이 나서 1848년의 서민 폭동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비엔나가 19세기 유럽의 국제 회의를 통한 외교를 주도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건축가가 더 유명한 나라(?)

우리는 비엔나 하면 음악의 도시, 유명한 무슨 교향곡은 누구 작품이라고 대충 아는 편이지만, 시내에 즐비한



VIC 건물의 야경. 준공 25주년 기념으로 창문의 등이 '25VIC' 글자로 나타나 있다.

유명한 궁전, 성당, 국회의사당, 오페라극장 건축물이 누구 작품이냐 하는 데는 문외한이기가 십상이다. 오스트리아 친구 몇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모두 주요 건물들의 건축가가 누구누구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해 준다. 건축가라는 직업이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대단히 존경받는 직업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알려진 비엔나의 「음악가 묘지(Zentralfriedhof)」에 가보면 Mozart 등이 모셔진 음악가들 묘지 바로 건너편에 더 큰 규모의 웅장한 건축가들의 묘지를 가 보고서야 비로소 이들의 직업 의식에 수궁이 간다. 그러면 비엔나 현대 건축물의 상징인 VIC UNO City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VIC - 그래도 회의실이 모자란다

지금 VIC가 들어선 지역은 본래 다뉴브 강북의 인접 습지대로 서울의 난지도 같은 비엔나시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다. 이미 IAEA는 1957년부터 본부 건물로 비엔나 시내 궁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었지만 국제 기구의 본격적인 유치를 구상하는 오스트리아 정부는 1967년 전후 복구 사업에도 힘겹던 시절에 대규모 UN 단지를 짓기로 결정하고 설계부터 국제 공모에 들어간다.

당선작은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Johann Staber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으로 5대양 6대주를 상징하는 28층, 22층 등 특이하게 생긴 Y자형 건물 6동을 짓게 된다.

총건설비가 당시 돈으로 10억불이 들었다 하고 1979년에 준공, 입주를 하였다. 벌써 준공 후 25년이 지났어도 외관이 수려하고 기능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데다 건물 유지 관리가 잘 되어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방문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 후 1987년에는 바로 연결된 건물로 Austria Center Vienna가 추가되어 IAEA 총회 등 대형 국제 회의를 수용하는 명실공히 유럽의 convention center로 자리를 잡았다. 내년 초부터는 25년 전 건설 당시 자재로 쓴 석면(asbestos)이 발암 물질로 판명되어 이를 교체하는 VIC 전체 건물의 대규모 보수 공사가 시작된다. 또한 심각한 회의실 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VIC 바로 옆에 또 하나의 회의 전용 건물이 착공될 예정이라 하고 이 모든 공사 비용은 비엔나시가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한다.

이미 국제 기구와 국제 회의 유치로 경제적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비엔나 시로서는 시설 유지 보수와 대규모 신규 투자에도 주저함이 없어 보인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추었으니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단돈 1실링의 연간 임대료를 받고 VIC 건물을 통째로 UN에 빌려준, 그래서 많은 국제 기구를 비엔나로 유치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많은 국제 회의를 유치하여 나라 위상과 경제 발전에 성공한 이 나라 정치인의 안목에 새삼 존경의 마음이 어린다. ☸